

개인의 존중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 호우가쿠칸(法学館) 헌법연구소 고문

2010년 1월 21일

1월 17일은 한신 대지진(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1월19일은 현행 미일안보조약이 조인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두 날을 계기로 헌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 여기는 ‘개인의 존중’(헌법13조)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신 대지진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법학세미나>, 1996년 4월호. 본문의 숫자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6308명. 작년 1월17일 한신 대지진의 희생자 수다. 이 숫자의 크기에 다시 한 번 지진의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크기 때문에 대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다. (중략). 6308이라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 모두가 귀중한 것이다. (중략).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을 받는다.’ 헌법13조의 조문이다. 여기에 나타난 ‘개인의 존중’ 원리는 기본적 인권을 생각할 때 기초를 이루는 원리이다. ‘개인의 존중’이라는 것은 철학적·사상적으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희생된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숫자로 취급하는 것은 무릇 용서될 리 없다. 나의 분노와 곤혹스러움은 이 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헌법 아래에서 실제로는 당연한 것처럼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자기자신도 그 때까지는 그래왔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곤혹스러웠다. ‘개인의 존중’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 사회는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미증유의 재난은 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 예를 하나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신 대지진 당시의 대응이 얼마나 ‘개인의 존중’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시점을 결여하고 있었는가의 구체적인 예는 위의 <법학세미나> 지면의 논고에 여럿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지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법학세미나를 참고할 것을 부탁드릴 수 밖에 없지만, 거기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시점을 갖추지 못한다면 같은 재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때 이후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헌법론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확신하여, 의식적으로 “개인”의 관점에 철저한 헌법론을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개인’의 관점이 무엇보다 결여되기 쉬운 분야가 군사·안전보장에 관한 논의이다. 1월 19일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의 미일안보 50년 특집기사 가운데 외교평론가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씨는 “감히 말한다면 자위대원 10명이 죽어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계속 주둔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위협을 감수하지 않는 특이한 나라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오카모토 씨 한 사람만의 ‘특이한’ 주장이 아니다. 전쟁이나 군대의 논리는 늘 그렇다. 희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0명, 20명의 희생으로 끝난다면 대성공이다. 이것이 전쟁이나 군대의 ‘보통의’ 논리이다. 오카모토 씨의 위의 발언은 일본의 경우 가령 전장에 파견하여 10명의 전사자가 나온다면 여론이 들끓어 철수하라는 주장이 비등할 것이고, 이는 ‘보통의’ 논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특이한’ 나라라는 취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보통의’ 논리인가. ‘자위대원 10명의 죽음’을 가볍게 말하지만, 그 10명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일 것이다. 로봇 10대가 ‘죽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전쟁이나 군대의 ‘보통의’ 논리에는 그러한 발상이 전혀 없다.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논리이며 이를 ‘보통’이라 생각하는 감각이야말로 ‘특이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기야 우리들은 자기와 직접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어차피 남의 일로 여겨, 이 ‘특이한’ 감각을 반드시 ‘특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 모두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까닭은 내 자신이 지진의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존중’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매사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자신은 그럴 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보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늘 계속해서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며 잘라 버린다면, 희생은 그 시점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로는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